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h1>보 도 자 료</h1>		
배 포 일	2023. 8. 30.	작성부서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팀	
센 터 장	노 승 복			
담 당 자	심 수 진	전 화	041-943-9911	

마을공동체 풀뿌리 기초강화 사업가칭 제안 - 보조금제도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사장 이종필 부군수, 이하 “재단”)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군수를 비롯한 행정 및 재단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제도정비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연구의 중심을 농촌마을정책 평가와 보조사업 개선으로 변경하고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풀뿌리 기초강화사업(가칭)’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동안 보조금제도정비 연구에서는 한계 마을과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 대상의 ‘마을공동체수당’을 논의했으나 회계 및 예산마련의 문제로 변경이 된 것이다.
- ❖ 새로운 시범사업은 기존 동네자치 소액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마을자치와 주민자치회의의 연계를 위해 ▲군에서 읍면 선정 후 4자 주민협정 체결 ▲경쟁공모를 통한 읍면 1개소 선정 ▲행정리 마을사업과 읍면 정책 연계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 ❖ 재단은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민간 및 행정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시범사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 ❖ 한편 청양군은 농촌마을정책을 위해 ▲농촌공동체과 신설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인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3대 ‘함께이음’ 정책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성과를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농촌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 및 정책사업 도입 방안이 필요해져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 ❖ 이종필 이사장은 “기존 사업을 평가분석하여 농촌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소멸해가는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일으키길 바란다”며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사례가 많은 청양만큼 이번 정책을 통해 청양을 알리고 농촌 마을의 자치역량을 키워 쇠퇴해가는 농촌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문의

1)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팀 심수진 팀장: 041-943-9911